

여전히 이것은 노동하는 인간의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김도운

2020년대에 노동소설이라는 장르는 소멸한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 '노동소설'은 대체로 계급의식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노동자가 계급의식을 자각하는 것도 2020년대에는 유효하지 않게 여겨진다. 여기서 계급의식이란 개별 노동자가 자신이 속한 계급의 위치성을 이해하고, 모든 노동자와 단결함으로써 노동해방을 이뤄내야 한다는 자각과 사명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계급의식은 노동자 정체성의 자각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인식을 이룬다. 그렇다면 기존의 노동소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노동의 상상력을 의미화하여, 지금의 노동자에게 필요한 서사적 상상력을 추출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발표는 그 예비적 작업으로서 1930년대와 2020년대에 각각 노동의 문제를 다룬 강경애의 『인간문제』와 이서수의 단편소설집 『젊은 근희의 행진』 수록 작품을 함께 분석한다. 두 작품에서 노동자 정체성, 특히 여성 노동자 정체성과 그에 결부된 세계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노동소설'과 '계급의식'이라는 개념을 역사화한다. 물론 근 100년에 가까운 시차가 있는 두 작가의 작품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기에 1930년대의 강경애와 2020년대의 이서수를 함께 보고자 할 때, 계급의식 역시 교차성의 관점에서 굴절되는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2020년대의 노동자 정체성이 어떠한 새로운 계급의식을 공유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장르로서의 노동소설이 가진 실천적 의지를 잇고 그 계보를 다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문제』는 '인간 문제'를 부르짖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 계급 문제의 중요성을 소구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 주체로서 노동계급에게 호소한다. 그러나 '미조의 시대'¹⁾에 이르는 『젊은 근희의 행진』에서는 "혁명은 끝났고 착취는 계속된다"는 사실에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이 차이는 두 소설의 계급의식, 즉 노동자가 자기를 인식하고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1930년대의 계급의식과 노동해방론은 프롤레타리아의 자기 정체화와 결부되어 있다. 이는 노동자 민중이라는 집합적 주체를 강조한다. 프롤레타리아 계급 내부의 동일성과 진보적 역사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강한 행위성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세계인식은 젠더, 인종, 장애 등의 위계를 비가시화하는 등의 맹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실천의지를 불러일으켰다. 『인간문제』는 이와 같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간문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여성 인물 선비를 통해 하층민 여성이 겪는 폭력의 교차적 성질을 구체적으로 재현한다. 그럼에도 투쟁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인물의 행위성을 도로 축소시켰다.

한편 신자유주의를 거쳐 당도한 2020년대의 노동자들에게는 혁명의 상상력이 부재하다. 1930년대의 의식화된 노동자에 비해 계급의 적대성은 비가시화되며, 역사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유연성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가이 스탠딩은 이렇게 변화한 노동자의 존재론을 설명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와 불안정을 의미하는 프레카리오를 결합하여 '프레카리아트'라는 조어를 만들어냈다. 프레카리아트는 자기규정이 불가능하며, 다른 노동자를 이해하지 못하며, 탈정치화된다. 『젊은

1) 『젊은 근희의 행진』 수록 작품

근희의 행진』속 노동자들이 무력감을 드러내고 다른 노동자와 불화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서수는 이러한 몰이해를 완전한 이해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불화한 채로 끝내자고 말하지도 않는다. 대신 비동일성을 수용하는 공존을 강조한다. 이는 불안정성 자체를 공통의 기반으로 사유할 때 가능한 것이다.

1930년대의 강경애와 2020년대의 이서수. 두 소설은 노동자의 주체 형성과 세계 인식의 방식에서 한데 묶기 주저될 만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서수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의지나 인식을 드러내는 대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문제를 우선시하는 소극적인 인물들을 그리고 있지만, 균열과 차이를 소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려 한다. 강경애는 노동자 주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범했던 우를 일부 반복하기는 하나, 나름대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실천적 동력을 소수자들로부터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구했다. 하지만 두 소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동자의 입장에 귀 기울이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며 살 만한 삶을 모색하려 애쓴다. 어쨌거나 ‘노동 소설’의 의의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것이라면, 연구자는 이전의 노동자들과 2020년대의 노동자들을 연결하는 계보를 찾아야 한다.

노동소설이 가장 활발히 창작되었던 1970-80년대의 작품들을 누락하면서 노동 소설의 범주 적용이 다소 자의적이게 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노동을 담은 소설들의 계보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범주의 확장과 재의미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친다.